

강진 가우도 지역경제 살리는 ‘심장’ 급부상

올 1~6월 14만명 찾아

메르스 역경 딛고 관광특수

마랑 수산시장 등 파급효과

최근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속에서도 강진 가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강진만에 자리한 가우도는 주민 31명이 거주하며 전남 유인도 가운데 가장 작은 섬(면적 0.29㎢)이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가우도 입구 2곳에 설치된 무인계수기를 통해 관광객을 계속해보니 올 1~6월동안 13만9606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300명을 넘어섰고, 주말이면 3000명을 돌파하고 있다.

가우도는 지난 2013년 설치된 출렁다리를 비롯해 ‘섬 돌레길’과 복합낚시공원까지 독창적인 섬 테마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 전남도 시작 사업인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으며 여는 때보다 관광 특수를 맞이하고 있다. 가우도에 관광객들이 북적이면서 지역 곳곳에 파급효과를 가져와 강진 지역경제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가우도에서 차로 5분 거리인 ‘고려청자 박물관’의 경우 올 1~5월 7500명이 찾아 지난해 같은 기간인 2500명보다 200% 늘었다.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에서 강진만 한 가운데에 자리한 가우도(鰐牛島)까지 이어진 출렁다리(1154m). 가우도는 섬 생김새가 소 명에 처럼 생겼다 해 붙여진 이름이다. <강진군 제공>

강진 청자도요지 일대에서 개인청자 판매점을 운영하는 윤태영(63·대구면) 씨는 “청자축제 기간도 아닌데 관광객들로 청자촌이 들쭉이고 있다”며 “작은 섬 하나에 불과한 가우도가 살아나면서 청자산업 역시 살아난 기분”이라고 말했다.

개인요 청자판매 실적 또한 4~5월 118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8만원보다 60% 이상 매출액이 늘었다.

고려청자촌에 들어선 ‘한국민화 뮤지

엄’은 주말이면 평균 300명 이상 방문하고 입장료와 체험료, 기념품 등을 통해 300만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가우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마랑 놀도 수산시장’ 역시 주말이면 평균 4000명 이상 방문하며, 매출액 역시 5~7월에만 4억6600만원을 넘어섰다.

문화관광지가 넘쳐났던 강진군이 최근 개장한 오감통을 비롯해 마랑 놀도 수산시장, 청자·민화박물관, 감성여행 ‘푸소체

험’(FUSO·Feeling up Stress Off=농·어가 민박체험), 직거래 지원센터 등 근래 급증하고 있는 강진 방문객들에게 살거리와 먹거리를 관광과 융합해 지역민에게 소득창출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가우도와 청자촌의 볼거리와 마랑 놀도 수산시장과 오감통의 쇼핑을 융합해 지역경제가 들쭉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 회춘탕으로 복달임 하세요

닭고기·해산물·한약재…치매·노화방지 효과

‘먹으면 다시 젊어지는 정력음식’으로 알려진 강진 회춘탕(回春湯)이 삼복더위 복달임용 최고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회춘탕 역사는 6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 1410년대부터 강진 마량면 ‘마도진 만호성’ 주변에서 전해진 보양식이다. 수군 만호(종 4품)가 관직이 높은 양반들을 대접하기 위해 바다에서 잡은 귀한 해산물과 닭고기, 한약재를 넣어 만든 진상품 음식이 훗날 회춘탕이라 불렸다.

강진 회춘탕은 육수부터 다르다. 황칠과 가시오가피, 헛개나무 등 12가지 한약재를 넣고 1시간30분에 걸쳐 푹 끓여야 제맛이 난다. 담백한 맛을 우려낸 육수에 고급 해산물인 문어, 전복과 함께 닭을 넣고 끓여 영양은 물론 식감이 좋다.

특히 지난 2013년 광주여대 연구결과 ‘회춘’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성



분을 분석해보니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함유량이 1g 당 800mg으로 녹차보다 10배나 많고, 항당뇨 성분과 치매 예방을 돕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진군은 관내 10개소의 회춘탕 인증식당에 전문 레시피를 전수하고 상품규격화와 서비스 요령을 컨설팅해 전문 식당으로 육성했다. 지난 4월에는 특허청 등록을 완료해 상표권을 확보하는데도 성공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군 내달 6·7일 ‘통합의학 박람회’

‘2015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전남진 장흥물축제 기간인 오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탐진강변 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물축제와 동일 기간, 장소에서 개최해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하게 구성했다. 가족단위 관람객을 주요 타겟으로 공략하게 된다.

올해 박람회는 2016 장흥 국제 통합의학 박람회의 준비 성격으로, 행사 규모는 과거보다 축소하고 내실을 기해 5개 부문 48종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2016 장흥 국제 통합의학 박람회 주제를 미리 선보이며, 독일·일본·중국·인도 등 외국 통합 의료기관 참여를 열었다. 또 통합의학 프로그램 강화, 국내 우수 통합의학 진료병원 참여 등으로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통합의학관은 건강관리관, 생활건강관, 건강진진관, 건강진단관 등 4개 관으로 38개의 전시 및 진료체계를 실시하고, 기획행사로 면역 증강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윤현기기자 chadol@



영암경찰서-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 안전사고 예방 협약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암경찰서(서장 민성태)와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학봉)가 하계 휴가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름 성수기 탐방객 증가로 인한 성폭력 등 각종 범죄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보완과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월출산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 예방 ▲취약지역 순찰 강화 ▲안전사고 예방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민성태 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립공원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 차안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장흥 안양농협조합장 당선무효 소송 기각

광주지법 “당선자 피선거권 있어”… 원고 패소 판결

낙선한 전직 조합장과 당선된 현직 조합장간 법정공방 소송<광주일보 2015년 4월 1일 13면>이 원고 패소(기각) 판결로 일단락됐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재판장 김순열)은 지난 15일 S씨가 “장흥 안양농협조합장 조합장에 당선된 K씨가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며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 및 조합장 직무정지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S씨가 주장한 당선된 K조합장이 동 조합 자회사인 광역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비상임 감사는 지난 2013년 7월 21일자로 임기만료로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 원고인 S씨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동 조합 자회사인 안양면 광역 친

환경 영농조합 법인과 당시 비상임 감사였던 K조합장 사이에는 민법상 업무 수행권을 인정하는 규정일 뿐 감사로서의 지위까지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미 감사로서 지위를 상실(대법원 판례) K조합장은 피선거권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S씨는 “K조합장이 후보등록(2월 24일) 이전인 2월 23일까지 자회사 임원(비상임 감사)직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월 25일 안양농협에 사직서를 제출, 피선거권이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법원에 당선무효 확인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장흥=김용기기자·충무취재본부장 kykim@

영암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영암군은 지난 14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민·관·군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영암건설을 위한 2015년 2분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육군 제8539부대 5대대와 51군수지원단, 관계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안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중점관리자원 운영 및 비상대비 교육과 발전방안 토의 등 내실있게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국가 비상사태 시 소요되는 전시 동원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



해 민·관·군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인적·물적자원 동원계획의 실효성 검토와 비상 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내년 추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40~50년생 50만주 식재됨
50만주(현재 묘목이 주당 3000원 정도 거래됨)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3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45천(보1억 월680만)
- 수원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철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철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 (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록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350㎡ 매 9억4천만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은행(ATM), 편의점, 소매점	임대완료
2층		잔여 1201㎡
3층		1629㎡
4층		1267㎡
5층		1400㎡
6층		임대완료
7층		1400㎡
8층	은행, 보험, 증권 기타사무실	1383㎡
9층		잔여 591㎡, 307㎡
10층		1342㎡
11층		1307㎡
12층		임대완료
13층		임대완료
14층		임대완료

상무비즈센터

(구.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2633-1100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